

# 프로야구&가상광고, 그 환상의 공합



송재화 | HS애드 Cross Media Solution팀 국장  
jhsong@hsad.co.kr

### 프로야구 중계방송은 케이블TV 시청률 보증수표

시즌 초반부터 거침없는 흥행몰이로 역대 최소 경기 400만 관중 기록을 돌파한 2011년 프로야구는 이제 700만 관중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흥행 보증 구단들이 중상위권에서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면서 이러한 흥행 열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2006년 WBC 4강 및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을 통해 상승하기 시작한 인기가 6년째 이어지면서 이제 프로야구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가족 스포츠로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프로야구 인기를 꼭 그라운드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 안방에서도 야구 열기는 뜨거웠다. 프로야구 인기는 최근 몇 년간 케이블TV 스포츠채널에서 독보적이다. 매일 열리는 4개 경기가 모두 생중계된다. 이유는 시청률 1%만 넘어도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케이블TV 업계에서, 평균시청률 1%를 넘나드는 프로야구는 시청률 보증수표이기 때문이다(그림1 참조). 이로 인해 올 프로야구는 일반광고는 물론 가상광고까지 거의 '완판' 상태이다.

케이블TV 프로야구 중계방송 시청률은 기본적으로 매치업(Match up)에 따라 결정된다. 매치업이란, 어느 팀끼리 맞붙느냐는 뜻이다. 인기 구단이 맞붙으면 어느 방송사에서 중계를 해도 기본 시청률 이상이 나오지만, Fan층이 얇은 구단끼리의 경기는 어느 명해설가가 마이크를 잡아도 1% 이상의 시청률 보장이 어려운 현실이다. 올해는 인기몰이 구단들이 선전을 거듭하면서 프로야구 중계 시청률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청률 고공 행진은 방송사의 과감한 투자와 개선이 있어 가능했다. NHK 중계팀이 보고 '미 메이저리그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로 향상된 화려한 카메라워크와 다양한 첨단기술 도입으로 한국프로야구 중계에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시즌 처음 도입된 첨단 투구 추적 시스템(PTS: Pitch Tracking System)'은 그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나 볼 수 있던 가상 그래픽'을 통해 야구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돋우어 시청자층을 넓고 두껍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림2 참조).